

배당을 활용한 CEO 자산관리 전략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주주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단 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굳이 배당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몰라서 또는 막연히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 많은 법인들이 배당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배당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가족간의 지분설계를 전제로 한 배당정책은 **최상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음은 물론
CEO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배당정책의 주요전략

1. 배우자, 자녀 등을 고려한 지분설계 선행
2. 매년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진단 후 배당정책 수립
3. 중간배당을 통한 탄력적인 배당 실행

배당정책의 필요성

대표이사의 세부담 경감

대표이사의 **급여와 배당을 적절하게 혼합설계**하면 개인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금액만큼 개인의 재투자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진단

정기적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매년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증여양도, Exit전략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차원에서 필요성

중소기업 CEO들의 개인자산은 70% 이상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가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배당은 **CEO의 주식자산을 현금화해서 주식 외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산배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자산관리 전략입니다.

배당 기본 이해



배당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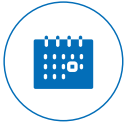
[정기배당]

정기배당은 결산기 종료일 이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정합니다.



[중간배당]

정관으로 중간배당 규정을 정하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 3 1항)



배당금 지급 시기

원칙적으로 배당금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4조 2 1항)



배당가능이익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상법 462조 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배당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물배당

- 회사는 금전 이외에도 주식 또는 현물(재고자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보험증권, 고정자산 등)을 통한 이익배당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의 4항)
- 중간배당은 금전배당과 현물배당만 인정됩니다. (주식배당 안됨)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현물에 해당하므로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 모두 가능합니다.



차등배당

- 2021년부터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받은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됨에 따라 초과배당(차등배당)의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 다만 최대한 주식가치가 낮을 때 가족간의 적절한 지분분산을 통해 매년 꾸준히 균등배당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